

6·15 민족통일대축전 성과와 과제

‘통일 불씨’ 다시 지폄다

남과 북이 잠시나마 '하나'로 뭉쳤던 '6·15 민족통일대축전'이 막을 내렸다. '5월 정신'을 바탕으로 치러진 이번 행사는 얼어붙어 있던 남북 관계를 다시 녹이고, 끊어지던 직전이었다던 '통일의 다리'를 다시 잇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양측의 당국대표들이 참가했음에도 실무적인 협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진보와 보수의 대립은 축전에 보이지 않는 한계점 양극을 남겼다.

광주 '민주화 성지' 거듭날 기틀 마련
실무협의 없이 만남으로 끝나 아쉬움

◇성과=이번 축전은 남과 북 당국 사이의 교류 폭을 넓히고, 언제든 대화의 장(場)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6자 회담' 복귀가 지연되고, 남북철도 시범운행이 갑자기 취소되면서 냉각된 '통일 열기'에 다시 불을 지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북측 대표단이 사상 처음으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5월 정신'이 평화통일의 근간을 이루는 이데올로기라고 천명, 광주가 '민주화의 성지(聖地)'로 거듭날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 남·북 당국 대표단 23명이 지난 15일 마주 앉아 '좌담회'를 갖

사 위협이 고조됐음에도, 남·북 당국 대표단이 만난 좌담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이 자리에서 코앞으로 다가온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 문제로 논의되지 않았고, 북측의 연기로 무산된 남북열차 시범운행 문제도 다루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당초 참가가 예상됐던 김기남 노동당 비서와 림동욱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등 거물급 인사가 불참한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축전에 참가할 예정이었던 해외 대표단 5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국이 불허됐고, 북측 대표단의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길에는 반북(反北) 현수막이 내걸리는 등 이념 간의 '양극'도 잔존하고 있었다. 일부 보수 언론은 축전이 '반미(反美) 성토장'이라며 매도하기도 했다.

또 평양을 출발한 경비행기가 휴전선을 넘어 광주 상공에서 펼칠 예정이었던 '개막식 축하비행'도 남과 북이 안전보장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 무산됐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16일 오후 6·15 남북 통일대축전 폐막식이 열린 광주 염주체육관에서 남북 여성들이 대형 한반도기를 들고 퇴장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백단장 “북측 젊은 여성과 춤 추니 좋았다”
북측 기자단-국정원 직원간 한때 실랑이

통일대축전 이모저모

6·15 민족통일대축전이 16일 폐막식을 끝으로 사실상 공식행사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남북·해외 대표단은 체육오락경기·유달산 산행과 축하공연 등 교류행사를 이어가며 이별의 아쉬움을 달랬다.

“춤 언제 그렇게 배웠나”

○이날 오전 10시30분 광주 염주체육관에서 열린 남북체육오락경기와 폐막식에 앞서 이종석·김영대 남북 당국대표단장, 백낙청·안경호 남북 민간대표단장 등은 대기실에서 전날 밤 조선대에서 열린 '축하 공연'을 소재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북측 김영대 단장은 백낙청 삼인대표에게 “어제 저녁 조선대에서 장단에 맞춰서 춤을 잘 추시던데 언제 그렇게 배웠느냐”라고 농담을 건넸다. 백 대표는 “북측 젊은 여성과 춤 추니 더 좋았다”고 응수했고, 이종석 장관은 “조선대 공연에 나왔던 장문정의 평양공연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300여명 통일 박 터트리기

○남북 체육오락경기의 마지막 순서로 열린 '공주머니로 통일 박 터트리기'

에는 남·북 대표 300여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남북으로 편을 나누지 않고 자유롭게 각각 금색과 은색으로 돼 있는 2개의 '통일' 박에 공주머니를 던지며 즐거운 비명, 하지만 금색 박이 한동안 터지지 않자 결국 손으로 터트렸고, 동시에 '우리의 힘으로 통일합시다'라는 문구가 써진 플래카드와 색종이가 터져나오자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남남 북녀 한조 지도 붙이기

○이날 진행된 북한의 체육오락경기 종목은 '양손에 공 안고 이마에 공 맞대고 달리기'와 '땀을 통하게 우리나라 지도 붙이기' 등 2가지.

경기는 '남남 북녀'가 한 조를 이뤄 진행됐는데 특히 다리가 연결된 '뽀에로 바지'를 입고 퍼즐 조각 12개를 옮겨 한반도 지도를 완성하는 순간 관중석과 주석단에서 박수갈채를 보냈다.

북측 참가자 한은정(여·22)씨는 “두 게임 모두 학교 다닐 때부터 체육대회나 소풍 때 주로 했던 게임”이라며 “남측 사람들과 함께 게임을 하니 기분이 벅차다”고 소감을 말했다.

접촉 통제 '과잉보호' 눈살

○남측 참가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북측 기자 한 명이 무언가를 받는 장면이

국정원 직원에게 목격되면서 북측 기자단과 국정원 직원 사이에 한때 어색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국정원 직원이 “아까 받은 물건이 무엇이나, 내놓아라”고 말하자 북측 기자가 “내 물건을 보여주고 돌려받았을 뿐, 왜 보여줘야하냐”고 대답해 한때 실랑이를 벌였다.

주위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국정원은 “오해였다”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이후 북측 기자들과 남측 기자들 간의 접촉을 통제하는 등 '과잉 보호'에 나서 눈살을 찌푸렸다.

“개인적인 발언” 유감 표명

○15일 저녁 조선대운동장에서 열린 '6·15공동선언 6돌 기념 축하공연'에서는 남측 공연도중 사회자인 정연옥 6·15 행사위원회 서울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인 최창가 수 안치환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미국기지가 이전할 광택 매향리는 우리나라 땅인데 미군이 지금도 전쟁 연습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 위원장은 하지만 정부 지원단 측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항의하자 북측 공연 시작 직후 “6·15 공동위의 입장은 아니고 개인적인 발언”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김대중 前대통령 노벨평화상 청상회의 기조연설 고르바초프 前대통령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4국
한반도 평화보장 책임 다해야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4대국은 남북한과 긴밀히 협의해 한반도 평화보장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6자회담의 참여국가인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는 지정학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4대국이 남북한과 협의해서 한반도 평화보장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문제 세계 평화와 직결
남과 북 당사자 해결 노력 필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번 200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광주정상회의의 주제를 2가지로 제안한 것은 한국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들이다. 바로 1980년에 있었던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2000년 6월에 있었던 남북정상회담이다. 평화와 민주주의, 자유와 인권이라는 것은 노벨평화상 수상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활동분야이다.



한반도에서의 민주주의 달성이 한반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키가 될 것임을 나는 확신한다. 한반도의 분단은 사실상 그 당시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양대 초강대국 세력과 열강의 대립의 결과이고 냉전의 산물이다. 그로 인해서 냉전의 종식은 한반도 상황을 급격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조건을 제공했다.

한반도 문제는 더 이상 양대 초 강대국의 대결에 불모가 되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다. 한반도 문제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는 한국과 북한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대화이고 실질적인 접근이다.

남북한 문제는 동북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에도 직결된다. 남북한이 직접 자신들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남북한은 접촉을 유지하고 있고, 경제협력력을 지속하고 있고, 상호비방을 중단하고 있어 김 전 대통령의 오는 6월 말 2차 방북에서도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핵을 둘러싼 미국과 북한간 현안 상호 이익이 되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타결하면 해결이 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축사

김前대통령 방북 남북관계 한단계 진전 시킬 것

지금 남북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으로 발전해가고 있다. 남북관계도 그때그때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이제 누구도 화해협력의 큰 물줄기를 되돌리지는 못할 것이다. 이달 말로 예정된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방북도 남북관계를 한층 더 진전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시아, 나아가 세계평화와 직결돼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간 신뢰구축, 그리고 남북 공동번영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이것이 한국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고, 역사 발전에 기여하는 길이다.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도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햇볕정책과 6·15공동선언은 적대와 반목의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길로 들어서게 한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다.

인류 역사는 전쟁과 지배의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 하면서도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진보해왔고, 앞으로 더 이러한 흐름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곳

동북아시아에서도 과거사가 남긴 불신과 갈등을 인들로 인해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을 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과거와 같이 제국주의 시대로 되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인류 역사의 진보를 이끌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회의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는 물론 세계평화를 위한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



노벨평화상 청상회의 이모저모



케냐 환경운동가 왕기리 마타이, 영국 평화운동가 모이러 코리건 마기르, 고르바초프 옛 소련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이란 인권운동가 슈린 에바디(왼쪽부터) 등 5명의 노벨평화상 수상자들이 1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 회의실에서 핸드프린팅한 석고 액자를 들어 보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26년생 소나무 5·18묘지에 기념식수
개회식 앞서 수상자 핸드프린팅 행사

“민주주의는 영원할 것”

○노벨평화상 수상자 광주정상회의의 둘째 날인 16일 오전 노벨상 수상자와 국내외의 인권·평화 운동가 50여명은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옛 소련 대통령, 쉘 마그네 분데티 전 노르웨이 총리 등 광주정상회의의 참석자 55명은 이날 오전 10시 광주시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헌화·분향했다.

김 전 대통령은 참배에 앞서 방명록에 ‘民主主義(민주주의)는 永遠(영원)히 살아 숨 쉴 것입니다’라는 글을 적었으며, 쉘 마그네 분데티 전 총리는 ‘끝없는 존경을 보낸다’는 내용을 적었고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은 간단하게 자신의 이름만 기록했다.

이들은 참배를 마친 뒤 5·18 민주묘지 내 추모문 우측 동산에서 기념식수를 했다. 기념식수로 심어진 나무는 5·18 민주항쟁이 일어난 1980년에 짝이 튼 수령 26년생 소나무로 높이는 2.5m이다.

당초 심자나무를 기념식수로 택했으나 나무의 원산지가 한국·일본이어서 자칫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담양산 소나무를 심게 됐다.

옛 전남도청 경유 이동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한 참가자들은 곧바로 김대중컨벤션센터로 이동, 개회식에 앞서 10여분간 핸드프린팅 행사가 참가했다.

케냐 환경운동가 왕기리 마타이 여사, 영국 평화운동가 모이러 코리건 마기르 여사, 미하일 고르바초프 옛 소련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이란 인권운동가 슈린 에바디 여사의 순으로 행사가 진행됐으며, 이들은 시종일관 취재진을 향해 밝은 표정을 지어보였다.

이들은 한지에 친필로 이름을 적은 뒤 진행요원의 도움을 받아 30여초간 두 손을 꼭 눌러 손모양을 뜬 뒤, 기념촬영을 했다. 이날 만들어진 노벨평화상 수상자들의 핸드프린팅은 일주일 후 별도로 제작될 대형 구조물에 부착돼 일련에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행사 주최측인 광주시는 광주정상회의의 마지막날인 17일 참가자들이 숙소에서 행사장인 김대중컨벤션센터로 이동하는

코스를 옛 전남도청을 경유토록 해, 그들이 5·18 민주항쟁의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배려했다.

輿의원 8명 교통체증 지각

○이날 오전 김대중센터에서 열린 개회식에는 노벨평화상 수상자와 국내외 인권·평화운동가, 국내 각계 인사, 취재진을 포함해 총 700여명이 참석했다.

개회식이 진행되는 도중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을 비롯, 정동채·문희상·정동채·강기정·수승룡·이재정·이미경 등 여당의원 8명이 교통체증으로 15분 늦게 도착했다. 이재정 의원은 “6자회담이 경제국면에 접어들 상황에서 이번 회담이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위한 발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국악관현악단 연주 갈채

○오찬은 정창영 연세대 총장의 주최로 노벨평화상 수상자와 주요 초청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여 동안 열렸다. 정총장의 오찬사에 이어, 모이러 코리건 마기르 여사가 건배 제의를 하자 분위기가 더욱 무르익었다. 축하공연으로 시립국악관현악단이 ‘광주서곡’과 모듬북 협주곡인 ‘방향’을 연주해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박수 갈채를 받았다. /최진민기자 man21@kwangju.co.kr